

천년의 사랑... 할미바위

안면도 송림리 ‘꽃지’ 앞 바다에 ‘할미바위’와 ‘할아배바위’가 나란히 서있다. 주변 갯마을에는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많이 정착해 있는데, 그네들이 ‘물질’을 하는 작업장이기도 했던 곳이다. 그에 따라 제주도 방언으로 ‘할망바위’와 ‘하르방바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바위를 배경으로 하는 일몰은 ‘서해안 3대 낙조(落照)’로 꼽힌다고 입소문이 자자하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몰려들었던 곳이다. 일몰을 기다리는 동안, ‘방포’라는 조그만 포구를 기웃거리니 그곳 풍경은 작은 어촌의 모습 그대로였다.

일몰 광경을 찍고, 물이 빠지면 해수욕객들이 조개를 주으려 몰려드는 곳,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면도의 상징처럼 유명해진 곳이 할미바위이다.

그 곳에서 지금 꽃박람회장이 열린다. 낙조의 유명세로도 이방인들의 출입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 꽃박람회장의 주무대가 되며 이웃한 작은 포구마저도 마치 서울 근교의 유원지를 방불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육지가 소란스러워졌을 뿐,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경관은 다를 바가 없다. 아래는 이 바위에 얹힌 애담은 전설이다.

시간은 천년 전 신라 흥덕왕 때이다. 당시 바다를 주름잡던 장보고가 청해진에 거점을 두고, 안면도 견승포[현 방포, 일명 텃개]에도 해상 전진기지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승언(承彦)이라는 사람을 임명하였다고 한다.

평안한 전선, 푸른 바다와 어울리는 흰 모래, 우거진 송림... 승언은 곧잘 아내 미도와 바다를 거닐었다. 그러나 견승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청해진으로부터 날

아든 출병의 전갈과 함께, 북쪽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승언

은 사기가 충천한 병사를 이끌고 전선으로 나서게 된다.

남편의 출병과 함께 아내 미도의 기다림은 시작되었다.

이내 돌아온다던 기약은 가물거리던 군선처럼 희미해

지고, 높다란 바위에 올라 바다를 지켜보는 미도의 안

타까움은 짙어가기만 갔다.

남편과 군사를 기다림으로 지낸 2년... 그러나 높은 갯바위에 올라 먼 바다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에도,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 속절없는 갈매기만 날아들 뿐이었다. 이윽고 미도는 한 평생을 기다리다 바위 위에서 죽고, 죽은 후에도 망부석이 되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바다로 고기잡이를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다는 이야기는 바닷가에 흔히 듣게 되는 전설이다. 그러나 장보고라는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결부된 장군의 아내 이야기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안면을 소재지 승언리의 지명유래가 전설에 등장하는 장군의 이름에서 연유한다는 이야기는 더욱 그럴싸하다.

이곳이 과거 삼남에서 올라오는 뱃길로서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되었으나, 역사 이름과 다른 이야기가 전해질 수도 있을 터이다. 꽃지 남쪽의 지명도 '병술만' 즉 군사들이 지켰던 곳이라 전한다. 옛 기록에서 쉽게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병사들의 애환에 얽힌 이야기는 전해질 법하다.

할미바위의 가슴 짙히는 전설과는 달리, 마주한 할아배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전하지 않는다. 뒤늦게 도착한 승언 장군이 함께 바위로 굳어졌을지도 ... 이에 대해서는 독자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는 안면도를 찾는 연인이라면,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보며 새롭게 사랑의 다짐을 해볼지도 하다.

〈충청학 연구부〉

